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조중신문

튼튼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당의 령도 따라 모든녀성들은 힘차게 싸워 나가자 희망찬 래일을 향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67호 [루계 제23019호] 주제 99 (2010)년 3월 8일 (월요일)

전당, 전국, 전민이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김일성민족의 혁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휴식해방의 구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나라녀성들의 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정선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높이 떨치며 조국청사에 빛날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는 우리의 전제녀성들을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우리는 조국통일과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남녀성人們과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찾기 위해 조국현진성들을 높이 밟아하고있는 제일조선인녀성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녀성들, 반체자주와 평화,녀성들의 해방과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진보적녀성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3. 8 국제부녀절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근로녀성들의 투쟁의 날이며 녀성들의 평등과 권리,녀성들의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시위하는 전투적영철이다.

세계 진보적여성들이 3월 8일을 국제적영철로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녀성들의 참나루 자유와 권리로 편취하기 위한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녀성해방운동에서는 친형생우리 녀성들에게 주술을 하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 발전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녀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고 혁명화,로동계급화함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을 3대기획혁명의 중坚으로 내세우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다. 어린이보육교양체제를 비롯한 사회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하시며 우리 녀성들에게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은 그 무엇으로써도 다 해야될수 없다.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녀성들의 사회적해방과 녀성문화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토고를 바쳐서 조선녀성운동에서 영광을 헌신했던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밀 3. 8 국제부녀절의 승고한 투쟁리념이 가장 훌륭하게 실현되고 녀성문제해결과 녀성운동발전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루어졌다. 현실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녀성들의 자주성이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녀성운동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평도자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혁사와 전통을 아로새기며 녀성문제해결의 및나는 모범을 창조하여온 주체의 사회주의녀성운동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훌륭한 전통과 혁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파 수령의 평도는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 녀성들의 첫 혁명조직인 반일부녀회가 결성됨으로써 조선녀성운동의 빛나는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봉건적질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온 우리 녀성들에게 자주적권리와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기 위해 기여한 수령님의 혁명적기록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녀성동맹안에 당의 평도체제를 펼쳐허니 새우시고 우리 녀성들이 혁명적위업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협약한 평도를 높이 모시고 내세워주시는 주체의 녀성운동으로, 신군의 가치 밖에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불폐의 위력을 떨치는 혁명적녀성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주체적인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혁사를 개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녀성운동의 생생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파 수령의 협약한 평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족수비퀴를 떨고나가는

<p

김정숙녀사는 녀성의 최고리상형이십니다

올해 3월 8일은 국제부녀절 100돐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여성운동자들이 남녀평등권과 자유를 요구하여 대대적인 파업과 시위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1910년년 미국에서 열린 제 2차 국제사회주의자녀성대회에서 3월 8일을 전세계녀성들의 국제적기념일로 제정한 때로부터 어느덧 10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르렀으나 국제여성운동기의 한세기를 살아온 증경인입니다.

여성운동에 별로 보탬을 주지 못한 황혼기에 이른 저이지만 훌륭한 여성으로 살고 싶은 청년들이 전부라 착각 오늘이까지 꺼지지 않고 있으면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누구보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현대여성운동에 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장 훌륭한 여성은 누구이며 나 자신이 오르고 싶었지만 오를 수 없었던 리상현의 언덕에 서 있는 여성은 과연 누구인가.

이 물을 알게 된 여성의 최고리상형으로 대여처럼 떠오르는 분이 있으니 그이는 바로 김정숙녀사자리로 저는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3. 8 국제부녀절 100돐이 되는 평화마루에 조선민족이 낳은 위대한 딸이신 김정숙녀사께서 서계시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1

나는 김정숙녀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애굽은 처녀시절부터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당국의 설음을 암고 중국의 할빈에서 태여난 나에게, 험한 세월에 어지러운 물이 들판에 걸친 꽃 밤반구 『규방처녀』에게도 조선의 빨찌산녀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려왔습니다.

지금 온밥 초롱통 눈심지를 듣구고 김일성장군에게 총을 염녀자들을 도는 놀랄고도 희한 한 이야기를 듣던 일들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전 TV에서 김일성빨찌산전설이 생생히 남아있는 옛전적지들에서 목격자들이 일제 군경들을 전몰케 하던 녀성유격대원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김일성장군부대, 그 부대의 여성빨찌산들이라면 싸워보지도 않고 절감하여 달아났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국민당 군대에서 싸우던 조련도 이런 말을 외우면서 감한 한적 있었었습니다.

이 전설적녀성빨찌산대원들의 한복판에 김정숙녀사께서 계시였다면 그분께서 어리신 나이에 총을 잡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조국해방성장을 나섰을 때 파연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던가고 자문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끄러지만 17살의 나이로 저는 중국 남경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제가 중국땅에서 생활할 때 조선사람들의 집 대문에 『망국노』라는 조소탁자가 자주 나를 볼 때마다 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통분하였던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시집 보내며 중국민족인 연분홍색 대부분자를 입혀 중국녀자처럼 변복을 시켜주었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풍습대로 다 자란 딸을 시집보낼 때 분홍치마, 초록저고리를 칠보단장을 끊기며 시켜주고 싶었지만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만이라도 당국노리는 조소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서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민지인생의 운명을 단하라도 꾀해보려고 중국옷을 입고 식을 울릴 때 김정숙녀사께서는 당국의 설을 을 가져버리고 수난받는 이 나라의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혁신을 했던 타파의 불꽃에 김일성장군께서는 총을 잡고 싸우시였습니다.

후날 타파의 불꽃에 김일성장군과 함께 군복차림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김정숙녀사의 모습을 우러르며 저는 중국 옷을 입고 결혼사진을 찍던 그날이 떠올라 죄스러움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나를 헤쳐나온 김정숙녀사!

그이는 전쟁 역사에 류례가 없는 장군형의 여성입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우리 여성들이 두려워하고 멀리 해운 물건이었다고 할수 있습 니다. 더우기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손에

총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숙녀사께서는 세계여성사가 이루어 못하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고 18살에는 조선인민혁명군대에 입대하시여 여성성장을 총잡고 전장에서 싸우시였습니다.

녀사께서 열살을 것 지난 어느해인가 아버님으로부터 독립군들의 투쟁이야기를 들으시며 너자도 총들고 싸우는 군대가 될수 있는가 물으시여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우기도 하시고 악마에서 글을 배우시면서 악학선생으로부터 『조선의 새별 김일성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분을 따라마음다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형의 너자만이 느낄수 있는 기쁨이요, 헐칠수 있는 눈물이라 하지 않 수 없습니다.

변변한 자기 군대가 없어 나라를 통째로 빼기고 2천만이 노예살이를 강요당한 민족수난의 역사가 영영 끝장내게 되었다는것이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추위도 느끼지 못하시고 환한 미소로 서계시였겠습니까.

진정 장군형의 너자만이 느낄수 있는 기쁨이요, 헐칠수 있는 눈물이라 하지 않 수 없습니다.

내가 알걸 알때 김정숙녀사께서는 해방후 당과 국가, 군대는 물론 여성단체의 그 어떤 공직도 굳이 사양하시였다고 합니다.

김일성장주석을 받았을 당시 창훈장에서도 늘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계시였습니다.

해방조국에서도 편하고 행복스럽게 가

나라 남들과 똑같이 잡풀밥을 들고

고나오시였고 사격술을 익히는 훈련장에서도

늘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계시였습니다.

제 20세기와 21세기를 이어 세계

가 공인하는 가장 위대한 두분의 수령,

두분의 장군을 통째로 반들어 올린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공적은 천추만대를

두고 세계여성사에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지난 20세기와 21세기로 키우시였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을 조국과 민족의 아들로

보시고 단순한 모성으로 짜증나으시기보다는 무한한 애국충정으로 키우신 김정숙녀사!

녀사께서는 아드님께서 김일성장주석을

아버지으로서가 아니라 나라의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도록 늘 교양하시였고

조국과 민족을 책임진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시였습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어리신 아드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나는 장군이 아니라. 그저 아버님의 전사였다. 아버님은 장군이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애들을 싫어하지만 나는 다만 아버님의 전사로서 애들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이렇게 생의 마지막까지

도전의 모습을 흐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녀사께서는 험난한 철도를 건설하면서

조선민족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자신의 뒤에 훌륭한

여인이라는 친구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걸친 아버님의 높으신

뜻을 충실히 달달한 마음으로 키우고

김정숙녀사께서는 아버님의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김정숙녀사는 아버님의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조선녀성들은 수령복, 장군복을 노래한다

전세계 근로녀성들의 전투적명절인 3. 8 국제부녀절 100돐!

지구상 곳곳에서 수십억의 여성들이 3. 8 절을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 조선녀성들은 블록이나 보람과 회망에 넘쳐나는 여성들은 없을 것이다.

가정과 사회에 향기를 풍기며 남자들과 어깨 나란히 혁명의 한족수비복을 힘껏 떠미는 우리 여성들은 조국의 사랑이고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힘이다.

3월 8일을 전세계 근로여성들의 전투적명절로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 부터 어느덧 세기 기 흐름간만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불평등과 온갖 사회악의 희생민이 되어 신음하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세계에서 선군조선은 여성들의 봉원으로 동경과 찬사를 모으고 있다.

나라없던 지난날 봉건의 질곡과 일제의 쇠사슬에 얹혀 열두자리치마를 눈물로 적시던 불우한 조선여성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선운 여성의 길을 찾고 최상의 사회적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는가.

한숨과 눈물로 일룩쳤던 우리 여성들의 얼굴에 생의 보람과 희열이 실리고 연약하기만 하였던 그들이 남자들과 함께 혁명을 추동하는 힘있는 존재로 인생의 키를 높이 솟군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행도빛에 우리 나라여성운동은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여성영웅들과 애국자들을 배출하였다」

수난많던 조선여성들은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해주시고 이 땅 위에 남녀평등, 여성존중의 새 사회를 건설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지난날 조선여성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인란 속박의 사슬과 원한뿐인 조선의 불온사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남존녀비』를 계루로 삼아 모든 여성을 비하적인 존재로 구속하고 집안의 며느리를 천한것이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 몸서리치는 봉건적 구속으로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라는 불행을 덧없이 막았다는 치명적인 란인을 쳐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고신 항일혁명은 그 모든 애운과 부조리의 근원을 송두리째 쓸어버리는 폭풍이었고 이 나라 여성들을 혁명의 길로 인도해준 세기적사변이였다.

『혁명의 한족수비복』라는 명구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통속적으로 천명하신 우리 수령님.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끌끌내고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일떠세우시려 혁명의 총을 둘어잡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있어서 여성들의 고통과 불행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것이었다.

조선혁명의 첫 기습에서 강반석녀사를 도와 반일부녀회를 두어주시면서 열기로 나를 펼쳤던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힘을 펼쳤던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혁명의 수레를 떠밀고나가는 남녀평등, 여성존중의 새시대를 펼친 혁사선언이었다.

남녀평등동지법령이 발포되었을 때 할당한 선거자로 참가한 첫 민주선거의 날에도 그리도 환하게 웃으셨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여성들을 위한 락아소를 주시는 일에도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다.

하루종일 공장과 농촌의 여성들을 찾아다니신 김정숙동지께서 저녁에 돌아와 「여성의 노래」를 부르시며 미

여인 우리 여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려 늘 마음쓰시였기 때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당당한 선거자로 참가한 첫 민주선거의 날에도 그리도 환하게 웃으셨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여성들을 위한 락아소를 주시는 일에도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조선여성운동의 자랑스러운 혁사를 더듬는 우리의 눈앞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숨ущ히 어려여온다.

여러분 나에게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항일의 전장을 푸는 모습으로 여성운영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혁명가로서, 여성으로서 한생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야 하는가를 빛나는 모범으로 보여주신 김정숙동지는 조선이 냉은 걸출한 위인이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푸성귀나 가구며 팔자를 한단단히 수많은 여성들이 용악 항일전쟁에 뛰어든 놀라운 혁명은 여성들을 철두철미 혁명의 한족수비복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운영의 길을 열어나가신 그이의 손길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인 운명전환을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누리에 빛나는 조선녀성들의 높은 존엄과 영예 근로하는 여성들을 위한 은혜로운 사회주의 요람

평양산원에서 연 673만여명의 여성들이 130여t의 산물과 보약재를 받으며 의료상혜택을 누렸다

온 나라 여성들이 『천정집』이라 부르는 평양산원에 우리 당의 사랑이 끝없이 들려져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100여차례 걸쳐 평양산원에 130여t의 산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보약재들과 최신의 의료설비들을 보내시였다.

세월이 흐를 수록 더해만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응진숙에 평양산원에서는 연 673만여명의 여성들이 의료상혜택을 받아안았다.

로하는 여성들에게 최상의 특전을 베푸는 평양산원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운는 여성증중의 은혜로운 요람이며 사회주의 복지 허러님치는 선군조국의 더없는 자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의 훌륭한 전당이 펼쳐진 새세기 들어와서도 자강도와 강원도의 깊은 산중에서 평수십년 목은 꿈이며 유명한 개성인삼을 산물에 세워서 만든 꿈삼, 건강에 제일 좋다는 1000까지 열매를 베한한 꿈, 희귀한 양털꽃 그리고 록래고, 꿈발꽃, 꿈꽃, 꿈과 같은 보약재들을 수많이 보내주시였다.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며 변화 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 만도 평양산원에 보장된

산물은 균 8t에 달한다.

행복한 산모들은 키여운 아기가 러치는 고고성을 듣는 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귀중한 산물과 보약재들은 평범한 나물은 물론 나라

현적이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 없이 여성들에게 안겨졌다.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주체 83(1994)년에 무려 3차례에 걸쳐 전기적인 물보

약재가 평양산원에 돌려졌으며 조국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시기에는 26t 400여kg의 산물과 약재들이

여성들의 운물으로 뜨거운 자

양분이 되어 흘러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의 훌륭한 전당이 펼쳐진 새세기 들어와서도 자강도와 강원도의 깊은 산중에서 평수십년 목은 꿈이며 유명한 개성인삼을 산물에 세워서 만든 꿈삼, 건강에 제일 좋다는 1000까지 열매를 베한한 꿈, 희귀한 양털꽃 그리고 록래고, 꿈발꽃, 꿈꽃, 꿈과 같은 보약재들을 수많이 보내주시였다.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며 변화 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 만도 평양산원에 보장된

기소대 선동원의 건강을 해야 하시여 그가 평양산원에서 종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시었으며 사경에 처하였던 40대의 임신부를 위해 사랑의 직승기를 떠여주시고 아이를 순조롭게 낳을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신 의료설비들과 기구들, 값비싼 약품들도 끊임없이 보내시여

평양산원에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그쳤던 갖추어주시였다.

평양산원이 개원되어 연 673만여명이 최상의 의료상

방조를 받은 지난 30년간 평범한 여성들을 위해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달리는 소생실』이 운 나라 방방곡곡을 누비는 동시대의 천성들이 무수히 풋겨났다.

적들의 새 청정도발책으로

온 나라에 춘전시상태가 선포되었던 시기 최첨연지역에서 태여난 세쌍둥이와 산모의 소생을 위하여 특별아간비행이 조직되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그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지

지도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천히 통양평원의 평범한 꿈착

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년대와 낸대를 이어오며 수많은 여성들이 평양산원에서 건강

보호를 받고 조국의 미래를 안

아끼우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대체로 세워주시였다.

사회주의의 혁파속에 평양산원에서 해상방조와 산부인과처를 받은 외국 국녀 성들도 7000여명을 헤아린다.

산파의 술이 발전하였다는 나리들을 찾았더니면서도 호파를 보지 못하였던 팔레스티나의

한 여성은 평양산원에 와서야 비로소 커여운 팔을 넣고 낳고

여비이 장군님의 죽복속에 『진달래』라는 아기의 이름까지 지 받아안았다.

꾸비의 한 여성이 결혼후 8년동안이나 그처럼 바라던 자식을 본것을 비롯하여 외국녀

성들이 이곳에서 『새별』, 『솔매』, 『설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꺼여운 천선동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들은 평양산원이 애달로 인간의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꽂아주는 사회주의의 상징이

【조선중앙통신】



전호가의 《철쭉》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여성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의 군인과 죽마을들의 집집의 문을 두드린다. 병사들이 보내온 축하장마다에서 이런 목소리가 뜨겁게 울린다.

『어머니, 3. 8절을 축하합니다.』

금방 시집온 군관의 안해도, 나에게 속한 군관의 안해도 어머니라는 그 부름에 가슴을 들먹인다.

3. 8절을 맞은 군인 가족마을을 집집의 아침풍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총대따라 총끈이 되어 이초소에서 저 초소로 이사집을 새날을 맞았을 병사들을 생각한다. 총대와 일원을 맺고 사는 군인가족들의 미움에는 병사들을 위한 힘으로 힘을 더하고 있다.

사무자는 그리움 안고

백두산과 장군의 그날의 말씀이 다시금 가슴에 떠온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 아래 회한하게 전변된 공장에서 행복의 천을 펼칠 힘 살아가는 우리 병직공장의 모습을 깊정숙이 머금어보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커갈수록 가슴속에 불타는 맹세는 오직 하나뿐이다.

지난해 남녀평등법령발포

군인가족이라고 뭐가 그리 흔하겠는가. 하지만 최고사령부

작식대원들이 자신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병사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고 있다고, 병

사들을 위한 군인가족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자신께서도 감동되

는 힘을 더하니 그걸 기록하다고 하시면서 친부모도 줄수 없는 사

랑 다 안겨주시며 선군혁명업

수행의 제2선군나팔수로 내세워주신 어머이장군님!

달군 불들을 품에 앓고 눈보

리치는 밤 전호가로 찾아가던

한사과, 빼앗아들던 남편들은 아침밥까지 기에 성수가 났다.

집집마다 선우송초리 높고 칼도미소리 또한 흥겹다.

봉준을 물에 앓고 눈보

리치는 밤 전호가로 찾아가던

한사과, 빼앗아들던 남편들은 아침

밥까지 기에 성수가 났다.

나는 그날의 영광을 언제나

심장길이 간직하고 천리마다고 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

세의 앞장에서 어머니조국의 기역속에 남을 값높은 생의 흔적을 새기겠다.

평양방직공장 로령영웅 김복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꽂혀납니다.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면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 없습니다.』

며칠전 우리가 평양산원에서 낮을 위한 선교구역에서 살고 있는 한 산모의 가정에 들렀을 때였다.

봉수령에 생긴 얘기를 알아보며 우리가 산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문득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동진료소의사가 방안에 들어섰다.

『아주머니, 래일이 예방접종날이 빛지 말고 진료소에 애와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알려줘야 할 집들이 있다가 하면서 좀 앉았다가 가라고 하는 너인의 청

데도 많고 기다리는데도 많구나. 그제는 탁아유치원공급소에서 기다린다고 하며 제는 애기옷을 사라고

상점에서 찾더니 배일은 또 진료소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누나.

요즘 너 대신 여기저기 다니자니 내 다리가 다 뻐근하다.』

예를 들어 그들이 부르고 있고 일터가 그들을 부르고 있으면 보람찬 하루일을 마치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에기를 앓고 나서면 탁아소가 기다리고 학교같이 나이가 된 자식의 손목을 잡고 나서면 배움의 대문이 어서 오라

운 일터가 그들을 부르고 있고 일터가 그들을 부르고 있으면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자 로동과 부원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회망에 따라 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국제부녀절을 맞이한 이 시각은 나라 여성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천세의 위인들에 대한 크나큰 감사의 정이 한껏

풀어오르고 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입니다.』

수도의 서평양여객역은 너성들이 운영하는 역으로 온 나라에 알려져 있다. 이런 려객역은 아마 세상에 혼자 앉아있지 않으리라.

여기 고장에 위치한 천재의 힘으로 운전지휘원과 운전원까지 모두 너성인 서평양여객역은 고난의 시기에도 역을 더 잘 운영하였고 수십년간이나 무사고 단위의 차량수로 전통을 떨쳐왔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약수, 겨울철에는 더운 물을 봉사하고 바느질, 구급약 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착실히 제작하였다.

『혈차를 맞고 보내는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서평양여객역에서 40여년간 일해온 역장 김진우는 온

동무의 말이다.

그는 매일 많은 혈차를 맞고 보내는데 그때마다 너성들이 나에게 나리의 한개 역을 통해 말려준 당의 믿음을 뜨겁게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 일터를 찾는 너성들마다 역에 이 땅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우리 너성들의 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같은 너성으로서 서궁지감과 함께 부러움도 금

는가.

그렇다. 생존의 권리, 행복의 권리로 누구나 인간의 정진한 삶이란 있을수가 없다.

190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삶의 권리로 생활하기 위한 너성동동자들의 시위가 있은 때로부터 한세기가 지났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세상의 수많은 너성들이 꿈꾸어온 그런 삶이 현실로 활짝 펼쳐난 곳은 지구상에서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꽂피워가시는 우리의 권리로 동무에게 나리의 한개 역을 통해 말려준 당의 믿음을 뜨겁게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 일터를 찾는 너성들마다 역에 이 땅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우리 너성들의 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같은 너성으로서 서궁지감과 함께 부러움도 금

는다. 생존의 권리, 행복의 권리로 누구나 인간의 정진한 삶이란 있을수가 없다.

그리자 로동과 부원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회망에 따라 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이요. 그걸 누리는건 동무에게 일락에게는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권리, 우리 너성들의 권리!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권리가 우리 너성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인가.

하기에 우리 너성들은 스스로 마음의 의무를 간직하고 있다. 행복의 권리에 따르는 향심의 의무!

그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나가는 것이다. 당과 보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로동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반드시 혼신의 구슬

그것으로 하여 더욱 빛나는 조선녀성의 권리이고 삶이다.

오늘 봄

《이북은 가장 아름다운 너성복락의 화원》

『너성들을 나라의 꽃으로 내세워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은 정령 사랑의 회신이시다.』 『이북 너성들에 대한 한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은 민족성원모두를 끊같이 품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 어데 가나 학교, 청자원 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령 전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국가 적인 시책과 사회적 관심 속에서 자라고나고 있다. 나라의 꽃 봉오리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이북어린이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의 말에 공감하며 다른 한 너성도 공화국북부에서 너성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달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사회의 최하층에서 해마다 이북의 너성들이 오늘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되어 국가정책에 참여하고자 노력이나 열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북에서는 지난 날 불건적질과 불평등한 사회제도에서 정직직무권리와 천대속에서 시달려온 너성들이 파악자, 인민배우, 의사로 되고 있다. 너성들의 리상천국을 마련해 주신 김정일장군님께 헌리고자 전정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자.』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언제인가 대구의 한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 밤가는 줄 모르고 공화국북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조선의 단체 글 발표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람들의 글』이 3일 미제와 피호전군人们的 위험성을 깨닫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미국과 남조선호전 세력이 8일부터 18일까지 1만 8,000여명의 미군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의 통합군에 「끼리풀보」,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을 단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스웨리예 조선친선협회가 미국과 남조선호전군들의 전쟁책임을 규탄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끼리풀보』,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은 남조선에 대한 협박이며 최근 군사들이 동원된다.

성명은 최근 남조선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협박을 조속히 시작

한 너성은 이북에서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맡아 잘 키워주고 있어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이 직장에 나가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놓고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 어데 가나 학교, 청자원 이 존중되고 있는 것일까. 그 깨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것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에 있다고 본다. 이남은 미국의 속지이지만 이북은 명실공히 자주독립국가이다. 이남은 민중옹호의 사회지만 이북은 민중중심의 사회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너성에 방랑론을 창시하시고 실천에 구현하심으로써 수수천년 혁신을 이루려고 있다. 그분께서는 나리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근로자들의 가정을 자주 찾으시어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고자 고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오늘 우리 공화국의 너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로 마음껏 행사하며 선군혁명위업의 한길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너성들은 반인민적정책이 낳은 사회적, 제도적 불평등 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

을 살고자 고생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오늘 우리 공화국의 너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로 마음껏 행사하며 선군혁명위업의 한길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너성들은 반인민적정책이 낳은 사회적, 제도적 불평등 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

을 살고자 고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양방문을 통해 새로운 너성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너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북의 제도와 시설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간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경애의 정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의 위기 극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군정치를 높이 밟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주회 회원인 광주의 한 너

성은 어느 한 토론회장에서 이렇게 웃었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의 위기 극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군정치를 높이 밟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복은 희

송하였다. 『아시아의 평화와 너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했던 남측대표단 성원들은 너성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화국북부민부의 현실에 대해 감동을 금지 못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의 한 신문화의 혁신에서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우리는 평양방문을 통해 새로운 너성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너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북의 제도와 시설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밝혔다. 『우리가 높은 뜻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을 실

백두의 천출명장, 절세의 위인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미 국선군정치연구소조가 2월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한정도자》라는 표제를 달고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활동사진들을 보였으며 『백두산은 빛난다』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백두산은 선군조선의 상정으로서 나라이 북방에 거연히 솟아있다.

조선민족의 뿌리내리고 반만년 민족사가 있다면 조종의 산 백두산은 민족자주위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이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이곳에서 항일대전을 벌리셨으며 그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이의 항일혁명사는 당국의 치욕을 암고 모래 알처럼 흘린 백두의 동포들을 영성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성시키고 자주와 전군의 기치아래 끝까지 헌신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야말로 백두산의 인간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실로 김정일장군님은 백두의 천 출위인을 맞이함으로써 더욱 혁명의 성산으로 되었으며 여기에서 조선민족의 생과 죽어 위대한 혁명의 위인으로서 조선민족의 새 시원이 펼쳐지게 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총대에 이어 하여 조선제방을 통일하고 당과 민족정권을 창건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와 주체의 만년재보인 선군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백두산은 조선의 혁명업적을 세기로 두고 길이 전하는 역사의 고장으로 빛나고있다.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던 백두산에 서 빛灿산의 아들로 탄생 하시여 항일혁명투사들의 기대와 사랑속에 성장하시였다.

그이의 태생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원. 선군혁명업적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한 민족

자주위업을 순간의 정도로 없이 전진시켜나가신다.

김일성주석께서 확인하신대로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 운 찬란하고 흥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이며 21세기는 김정일시대로 찬연히 빛날것이다.

민족최대, 인류최대의 빛깔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온 세상에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뜨겁게 메아리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백두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선군태양으로 밟아들어 올려 더욱 찬연히 빛난다.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에스파이나에 본부를 둔 조선파의 천선협회는 2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의 조선네트워크』에 『선군령장을 밟아온 조종의 산』이라는 제목의 글을 투집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상에는 명산으로 알려진 산들이 많다.

높이를 자랑하는 산도 있고 자연경치를 한껏 뽐내는 산들도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마음속에는 백두산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그는 중국은 『한나라, 두

제도』 방침을 확고히 판찰하며 양안판계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할 때 판한

그는 올해 정부사업을 잘

하자면 중국공산당 제 17차 대회 대정신을 진지하게 판찰하

여야 하며 경제의 안정하고

도 빠른 발전을 유지하고 인

민 생활을 개선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이룩하여 야

한다고 밝혔다.

군대 및 국가건설에 대해 언

그는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규구화를 통일시키는 원칙에 서 군대건설과 국방통

체계, 예비력량건설을 강화하고 군단단결과 군민단결을

공고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1기 제 3차 회의 개막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기 제 3차 회의가 5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호금도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간부들, 대표들이 개막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온가보국무원총리가 정부사업 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지난해 중국의 여러 민족인민들이 중국공산당의 영도밑에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서 세로운 성과를 이루하였다고 하면서 실천은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혁사적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팔레스타니 유적

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여나가시는데 대하여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시고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선통일, 인류자주위업을 순간의 정도로 없이 전진시켜나가신다.

김일성주석께서 확인하신대로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 운 찬란하고 흥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이며 21세기는 김정일시대로 찬연히 빛날것이다.

백두산은 온 세계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조선의 명산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기대와 사랑속에 성장하시였다.

그이의 태양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원. 선군혁명업적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한 민족의 차격이다.

백두산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대행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대전의 총명이 메이비치는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탄생 하여 무비의 달력을 비범한 의지를 키우시였다.

그이의 존합과 더불어 백두산은 찬연히 빛나고있다.

조선인민은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른다.

조선민족이 그처럼 뜨거운 눈길로 우러르면서 백두평생명의 오늘은 선군태양으로 높이 높이 올라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그 태양은 바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봉은 봄마다 그이의 리상파포부가 어려있고 꽃은 꽂마다 그이의 의지와 예지가 것은 백두산은 김정일장군님의 산이다.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태양의 빛을 받아안는 대행운을 지니었다.

김정일장군님은 김일성태양의 밝음과 따스함으로 21세기를 키울 조종의 산입니다.

그이께서는 한 조선인민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

1909년 3월 8일 임금

인상과 생활처지의 개선, 남녀 노동과 자유를 요구하는 구호들을 풀어주며 조직력과 단결력을 힘써가면서 파시즘으로써

독립자주가들을 전몰케 한

미국 시카고성으로 동자들의

민족성을 계속 견지하여 탕안판

제의 평화적발전의 새로운 국

면을 열어나갈것이라고 연명하였다.

그는 중국정부와 인민은 평화와 발전, 협조의 기치밑에 독립자주가들에게 평화의 교정책을

실시하고 시종 평화적발전의

길을 걸었으며 밭전도상나라들의

수호를 수호하고 세계적인

문화를 타당하게 해결하

는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밟았습니다.

그때부터 100년세월이 흘렀지만

자기의 존엄과 권리

를 지키려는 조선인민의

여전히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룩하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협하는 엄중한 행위로 린하였다.

성명은 그와 같은 도발적

인 행위를 당장 중지하도록

이스라엘에서 압력을 가할것

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주시

는 조선인민의

여전히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룩하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자유롭게 일어나기 바라는 조선인민의

지향이 무참히 짓눌리고 그들은 온갖 사회악의 첫째가는 혐생물로 되고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배제하는

내수부족의 차관들이

고장까지 세계적 적법에 위

해해하고 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내세워 수단대통령에 대한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

보여주며 조선인민은

제재형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

보여주며 조선인민은

제재형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

보여주며 조선인민은

제재형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

보여주며 조선인민은

제재형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

보여주며 조선인민은

제재형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

보여주며 조선인민은

제재형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

보여주며 조선인민은

제재형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

보여주며 조선인민은

제재형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

보여주며 조선인민은

제재형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경제체제까지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형장을 발급하는 협약에